

# 국회 차원 예산 적극 지원 요청 기록에서 돌봄으로 이어지다

### 양충모 남원시장, 첫 국회 방문해 국회의원들과 면담 갖고 현안사업 당위성 설명

남원시에 따르면 양충모 남원시장은 8일 국회를 방문해 박희승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 남원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예산(안) 반영은 물론, 향후 국회 심의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사진 오른쪽)은 8일 국회를 방문해 박희승 국회의원(사진 왼쪽)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양 시장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희승 의원은 지역발전의 핵심 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중점 건의 사업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640억원)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161억원)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180억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1,127억원) △규석지구 배수개선사업(135억원) △남계지구 배수개선사업(66억2,200만원) △차

세대 식물엑스포 기술 및 표준화 개발사업(312억원) △하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396억원) △임실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42억원)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400억원) 등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재해예방, 교통망 확충, 바이오산업 육성 등 남원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들이다.

양충모 시장은 "국가예산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편성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정부예산(안)이 기획예산처 심의 단계에 있는 만큼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며 쌓은 예산편성 경험과 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남원의 핵심 사업들이 정부예산(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시니어클럽 '인생이야기 기록 작가단'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역사회 연계 우수사례 주목

임실시니어클럽이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인생이야기 기록 작가단'이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는 데 고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생이야기 기록 작가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올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살아온 삶을 인터뷰하고, 이를 수기 또는 자서전으로 기록한다.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고 기억을 남기는 정서적 복지 모델로서 새로운 형태의 노인일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기록 작가단 참여자들이 독거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해 수기 작성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 중,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이 높은 현관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작가단은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지역 복지자원을 '좋은이웃들'과 즉시 연계했다. 높은 계단 구조를 보완한 경사로로 개선했어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

의 삶을 기록하는 과정이 생활 속 위함을 발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복지 연계로 이어진 것이다.

수기를 완성해 받아든 어르신은 "내 이야기를 이렇게 소중하게 남겨줘서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보였다. 참여 어르신들의 사업 만족도 역시 높아, 자존감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김윤호 관장은 "어르신들의 삶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역사이자 다음 세대에 전할 귀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인생이야기 기록 작가단을 통해 삶의 가치를 기록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따뜻한 노"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타잡 HACCP 인증 획득

순창군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으로부터 신선하고 안전한 유제품 생산을 위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취득하며 지역 낙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에 획득한 HACCP 인증은 원유의 입고부터 살균, 포장, 보관, 출하까지 유가공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차단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유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현재 순창군은 단순 원유 생산에 머물러 있던 낙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가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농가들이 직접 신선한 원유와 생크림을 활용해 밀크젖을 생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낙농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특히, 유제품은 온도 변화와 미생물에 민감하여 일반 가공식품보다 훨씬 까다로운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기타잡 인증은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이러한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가공창업연구회 고문인 변수기 대표는 "이번 가공센터의 HACCP 인증은 우리 순창의 낙농가들이 원유 납품을 넘어, 고부가가치 유제품을 다양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 관리를 바탕으로 낙농업자의 자력과 제2가공장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HACCP 인증은 순창에서 생산되는 유가공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유제품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낙농가의 소득 증대와 순창 유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보건소, 수두 예방수칙 준수 당부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올해 상반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법정감염병이 수두가 학교를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생후 12~15개월 영유아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남원시의 예방접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회 예방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효과가 일부 감소할 수 있어, 확령기 아동·청소년은 단체생활로 접촉 기회가 증가하면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두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진성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발열과 피로감, 발진(수포성) 등의 증상으로, 잠복기는 최대 21일이며 기침·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이나 수포의 직접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이다.

보건소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실내 환기 철저 △발진·발진 등 의심상징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 △감염 시 모든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등원·등교 중지 등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나서

순창군은 지난 7일 팔덕면 체육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190여 명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감염병 등 각종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수칙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8일까지 11개 읍·면 문화복지센터와 체육관 등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의 주요 증상과 예방수칙을 비롯해 결핵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의 중요성, 일상 속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 임실군, 하반기 총 59대 지원

임실군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저 저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8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28

대, 전기화물차 6대 등 전기자동차 34대와 전기이륜차 25대 등 총 59대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계속해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군민과 임실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단체·공공기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대리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전환될 수 있다.

차종별 보조금은 차량 모델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 대상 차량과 보조금 규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이 마련됐다.

올해 신설된 '친환경지원금'도 눈길을 끈다. 최초 등록 후 3년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제외)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보건소, 내달 5일까지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시민의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 '혈관을 잡아라, 건강데이(Day)!'를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 2회씩 총 10회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및 건강상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건강행태 개선 위한 영양교육 및 건강교육 △우울 및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남원의료원 내과 오상미 과장

이 진행하는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은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개인별 건강관리 실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건강관리 실천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진 방문보건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